아이언맨과 새사람맨

(엡4:17~32)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이언맨과 새사람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영화 중에서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가 많이 있지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로보캅 등.
그런데 이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그 복장에 있어요.
하여간 슈퍼히어로치고 특이한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로보캅이라든지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복장에서 힘이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옷만 갈아입을 뿐, 옷을 안 입어도 거미인간으로서의 초능력이 있는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아이언으로 된 옷을 입지 않으면 초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보캅은, 사실 이 영화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로보캅은 뇌사상태의 경찰을 하이테크 기술로 덧입혀서 반인 반 로봇 식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로보캅과 아이언맨은 이 복장에서부터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은 빨간색 팬티를 입고 망토를 맨다고 해서 초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초능력

이 있는데, 옷만 바꿔 입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라는 얘깁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아이언맨과 새사람맨, 사람이라는 말이 맨 아닙니까? 새사람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이언맨이 아이언으로 된 옷을 입듯이 내가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사람맨, 맨은 나의 인격을 말하고 새사람이라는 게 옷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드러진 차이가 어디에 있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공통점은 거룩함과 의로 지음을 받은 옷들입니다.
옛사람도 거룩함과 의로 지음을 받았고 새사람도 거룩함과 의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입고 벗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라는 말이 의에도 걸리고 거룩함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새사람이라는 게 옷처럼 입어야 하는데 그 새사람의 재료가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원할 수 있는 얘기는 '옛사람은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을 재료로 지음을 받은 옷'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함을 재료삼아 만들어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을 재료로 만들어진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25절부터 32절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이언맨이 아이언으로 된 옷을 입기 전에는 보통사람이었다가 아이언으로 된 옷을 입게 되면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사람이 되면, 옛사람을 입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명령형으로 써 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으로 구제하라!'
이런 모든 명령의 말씀들은 새사람을 입을 때 나타나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바른 뜻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명령을 수행한다, 복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새사람을 먼저 입어

야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새사람을 입었는지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입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것은 거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거울로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이 안 나타나면 새사람을 입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사람의 재료로부터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재료가 거짓된 거룩함과 거짓된 의입니다.
거룩함이면 거룩함이지 무슨 거짓된 거룩함이 따로 있는가, 의면 의이지 거짓된 의가 따로 있는가, 의문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대제사장이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다 가르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숨긴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느냐?'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하속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겠지요, 예수님이 앉아계셨을 테니까.
아, 정말 이런 무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때린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핀잔조로 대답할 수가 있느냐, 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된 거룩함이에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거룩하다고 느끼고 대제사장 스스로도 자기가 사람들과 구분된 자라고 느끼며 거룩하다고 느낍니다.
또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 자체에 거룩함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구분되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룩함에 썩은 시체가 포함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이게 거짓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된 거룩함을 재료삼아 옛사람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룩함을 좀 더 피부에 닿게 정의를 내리면, 영어의 like, 좋음의 궁극적인 상태가 거룩함이라 이겁니다.
근데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경직되고, 그 앞에 서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쩔쩔매게 되는 그런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에서 돈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돈을 최대한으로 많이 가진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우선 삼성에 입사를 하자,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2014년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건희 회장님께서 신입사원을 1대 1로 면담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회장님 앞에서 단독으로 대할 때, 예외 없을 거예요, 이 건희 회장님에게서 아우라가 나올 겁니다, 아마 광채가 비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돈을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이 건희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독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거룩함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함의 궁극적인 상태,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동회의 말단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순시하다가 동회에 들러 그 말단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나자고 해서 1대 1로 대면하게 됩니다.
이게 거룩함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공무원 중의 최고 공무원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이 동회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된 의는 무엇일까요?
그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것, 이 건희 회장의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아니, 회장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신입사원이면 바로 그 위의 대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과장님 차장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 게 의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재료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탕에 방임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살아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마음으로 관심의 일등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자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방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 좋아해서 끝까지 방탕할 바에는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자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방탕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식 잘 기른다고 영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마음을 뺏길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놔두고 마음대로 다른 걸 좋아하면서 거룩함을 향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궁극적인 좋음의 상태, 권력이 좋으면 궁극적인 좋음의 상태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까진 못 가더라도 대통령을 향해 갑니다.
국장, 청장, 차관, 장관까지 이렇게 매 단계마다 최고의 거룩함을 향해서 갈 때 필요한 단계 단계의 의, 내가 대리면 과장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과장이면 차장의 마음에, 차장은 부장, 이게 의를 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짜 의를 쫓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방탕하면서 방임에 나를 내맡기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살아계시면서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 일등 자리를 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3, 4등 안에도 못 들어요.
1등이 돈이라면 2등은 승진이고, 3등은 가족이고 4등은 자식,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하나님은 아예 등수 안에 끼지도 않고, 깍두기처럼 1등으로 선택된 것을 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동원하고, 2등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하나님 동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많이 얻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의를 얻어야 되요, 나를 받아들여주어야 되요.
삼성이 받아들여주고, 삼성 내에서 과장급으로 나를 받아줘야 되고, 부장급으로 받아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장 자리에 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다 가짜 의고 가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은 분인 걸 알고 마음을 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어갑니다.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은 매순간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을 일상적으로 실행해나가신 거예요.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이 100% 하나님께 수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생각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100% 발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사람을 입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행위의 차원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100%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발산되는 그러한 삶이 새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당장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새사람을 입음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빈약한 새사람이라도 입고, 내일은 더 충실해진 새사람, 그 다음에는 더 충실해진 새사람을 날마다 입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새사람의 옷이 점점 더 실해지고 훌륭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좋음의 유일한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이 생각이 내가 입을 새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삶에서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게 목표인 거예요.
승진이 목표가 아니고 회장님에게 인정받고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매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최종목적은 좋아함의 궁극적인 완성상태인 하나님과의 하나 됨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거룩함을 향해서,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이 매순간마다 하나님마음에 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순간마다 이렇게 살다보면, 내게서 점점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예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너희가 손수 수고하여 번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시간당 3000원 4000원 받는다, 예를 들어 목수 아저씨들이 15만원 받는다, 그 시간시간 들여서 내 손으로 번 돈 가지고 구제하게 생겼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아이언맨이 아이언 옷을 입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좋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매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내가 어렵게 번 돈들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초능력이 아니면 뭡니까? 시간당 얼마, 그렇게 번 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데.
그런데 그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새사람을 입은 거지요.
구제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내가 새사람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돈이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도 돈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방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방탕에 방임한다, 이게 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좋아한다고 내 마음을 쉽게 내줘버리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줘버리는 것도 간음입니다.
하여간 자식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돈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 돈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마음을 내드리기가 유리한 겁니다.
이게 방탕이고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최고로 잘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장가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걸 향해서 매 단계마다 그 기준에 들 수 있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돈, 자식, 건강, 승진,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무슨 사건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신경 쓰고 살다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고 모든 게 다 평강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이게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참된 거룩함과 참된 의로.
옛사람은 거짓된 거룩함과 거짓된 의.
아이언맨처럼 새사람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초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게 초능력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초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아직도 안 됩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었다가 새사람을 조금 입다가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입을 때는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좋아해서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새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일등자리로 내주면 되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일등자리로 내드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되고, 이거 하나만 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100% 수렴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발산이 되면서 아이언맨이 아이언 옷을 입을 때 나타나는 것 같은 초능력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이언맨처럼 새사람맨으로서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에서의 초능력들을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초능력적 행동들이 나에게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